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1
2. 주요 경제지표 3
3. 아세안 신흥국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 실태 4

주요 동향

◇ 美 FOMC, 테이퍼링 지속 및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

- 자산매입 규모를 3월 650억달러 → 4월 550억달러로 축소
 - MBS 매입규모: 300억달러 → 250억달러
 - 국채 매입규모: 350억달러 → 300억달러
- (기준금리 인상시점) 양적완화조치 종료후 상당기간(considerable time) 이후가 될 것. 상당기간은 6개월(2015.4월경) 정도를 의미
 - 기준금리 인상 관련, 기존 실업률 기준치(6.5%)를 폐지하고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압력, 기대인플레이션율(2.5%), 금융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금리인상 여부 결정

◇ 피치, 러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 → 부정적으로 하향

- 국가신용등급은 'BBB' 유지
- (원인) 작년 경제 성장률(1.3%) 둔화. 미·EU 등 서방세계의 크림공화국 합병 관련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우려

◇ 日 2월 무역적자 8,000억엔, 예상(6,000억엔) 상회, 20개월 연속 적자

- (RBS)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수입수요 증가로 무역적자 지속.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에는 적자폭 축소 예상

① 외환시장

- (원-달러, 원-엔) 원화는 美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달러화 및 엔화 대비 약세
- (엔-달러, 달러-유로) 美 달러화는 美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엔화 및 유로화 대비 소폭 강세

구 분	'13년말	'14. 3. 14	'14. 3. 21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72.8	1,080.3	7.5
₩/100¥	1,002.3	1,055.4	1,055.5	0.1
¥/US\$	105.30	101.65	102.35	0.70
US\$/€	1.3736	1.3848	1.3784	△0.0064

② 채권시장

- (韓 국채금리) 美 국채금리 상승 및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상승
- (美 국채금리) Fed의 양적완화 규모감축 및 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 시사 등으로 상승

구 분 (%)	'13년말	'14. 3. 14	'14. 3. 21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83	2.89	0.06
미국 국채(10년)	3.03	2.65	2.74	0.09

③ 주식시장

- (韓 KOSPI) 美 경제지표 호조, 中 경기 부양 기대감 및 기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[(3.14) 1,919.90 → (3.21) 1,934.94]
- (美 DJIA) 美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, 우크라이나 리스크 등으로 상승폭 제한 [(3.14) 16,065 → (3.21) 16,302]

2

주요 경제지표

① **수출입물가지수(2월):** 수출물가는 원화환율* 상승 등으로 전월대비 0.7% 상승

*원/달러 평균환율: '14.1월 1,064.75 → 2월 1,071.30 (전월대비 0.6% 상승)

○ 수입물가는 유가*와 원화환율 상승 영향으로 전월대비 0.8% 상승

*두바이유가(월평균, 달러/bbl): '14.1월 104.01 → 2월 104.98 (전월대비 0.9% 상승)

○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물가 3.6%, 수입물가 4.8% 각각 하락

② **IT수출(2월):**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.4% 증가한 128.4억달러, 수입은 13.5% 증가한 62.1억달러, 수지는 66.3억달러 흑자

○ 휴대폰, 반도체, TV 등 주요 품목 수출 호조세 지속

③ **BDI지수:** 1,599로 전주대비 122point 상승

○ 西호주 철광석 수출 증가로 지수 상승

○ HRCI 지수는 전주 대비 4.9point 하락한 500.1

④ **유가:** 크림반도 사태로 상승하였다가 미 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소식으로 상승폭 제한되며 브렌트油를 제외하고 소폭 상승

(US\$/배럴)

유종	3월 14일	3월 21일	전주비
WTI유 현물	98.99	99.66	0.67
Brent유 현물	108.34	107.08	△1.26
두바이유 현물	103.96	104.20	0.24

3

아세안 신흥국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 실태

◆ 중국의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아세안 신흥국*이 대체투자지로 각광받고 있으나, 우리나라의 동 국가들에 대한 투자금액은 최근 감소세를 보임. 이에 따라, 상기 국가들의 최근 기업 경영여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.

*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, 미얀마, 캄보디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태국 등 8개국 (싱가포르, 브루나이 제외)

1. 검토배경

□ 최근 아세안 신흥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동 국가들 앞 투자금액 감소세 시현

- (수익성) 동 국가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9.5%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세 시현
- (투자금액) 동 국가들 앞 제조업 투자액과 총투자액 대비 비중도 2010년 이후 하향 추세

- 다만, 신규법인수 및 그 비중*은 최근 증가세

* (법인수) 156건('09) → 224건('10) → 302건('11) → 266건('12) → 361건('13)
(비 중) 17.3%('09) → 19.1%('10) → 27.2%('11) → 27.5%('12) → 31.6%('13)

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률

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.

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투자실적

(단위: 억 달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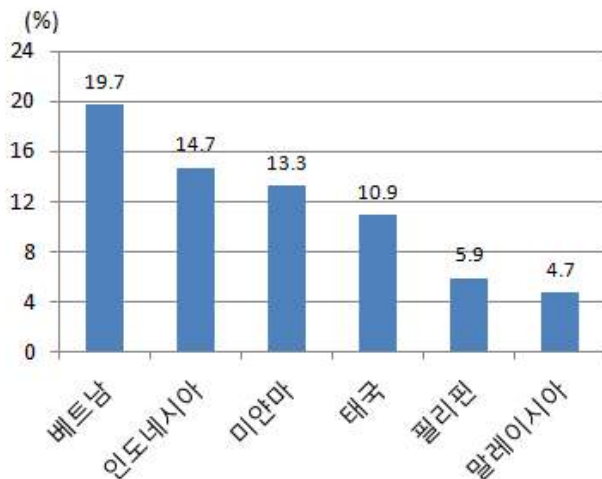
	아세안 신흥국		중 국	
	투자액	비중*	투자액	비중*
'09	5.0	10.8	17.3	37.2
'10	22.1	30.4	27.8	38.1
'11	21.3	23.5	28.4	31.2
'12	20.5	25.5	25.4	31.7
'13	17.1	17.9	44.7	46.9

*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투자 총액 대비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.

2. 주요 기업 경영여건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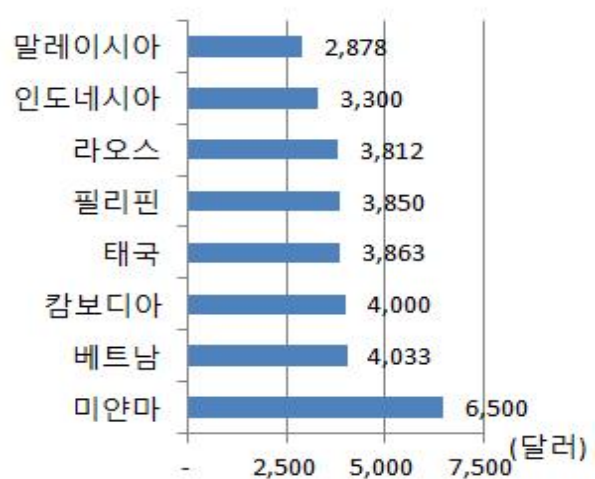
- (인건비) 고성장과 고물가 지속,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정책, 외국 기업의 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인건비가 급등
 - 특히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미얀마, 태국에서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
 - 필리핀, 라오스를 제외한 6개 아세안 신흥국에 진출한 일본기업 중 60% 이상이 임금인상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호소
 - 인도네시아(87.5%), 베트남(78.2%), 미얀마(76.9%), 태국(73.4%)에서 지역 평균(70.9%) 대비 높은 응답률을 시현
- (물류비) 교통 인프라 열악으로 많은 물류비용이 발생
 - 대 미국 수출시 아세안 신흥국의 컨테이너 당 운반비는 2,900~6,500 달러로 중국(2,700 달러), 싱가포르(3,000 달러)를 상회
- (인적자원) 고급인력 확보 곤란, 근무태도 불량도 문제
 - 필리핀, 태국, 인도네시아의 고등교육은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나,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는 중국에 크게 뒤쳐진 상황
 - 현지 직원의 성과인식 부족도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

주요 아세안 신흥국별 임금 인상률



* 2012년 기준, 캄보디아, 라오스는 자료 없음
자료: Jetro.

아세안 신흥국별 대 미국 수출 물류비



* 2012년 기준, 40ft 컨테이너 당 운송비
자료: Jetro.

□ (기타) 환율 불안, 행정의 비효율성도 투자심리 위축에 일조

-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의 환율 불안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증대
- 관세행정의 비효율성(인도네시아, 베트남),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(미얀마) 등도 애로사항

3. 기회요인 및 대응방안

□ (기회요인) 아세안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아 제3국 시장 개척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내수시장 확대도 기대

- 높은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중국 대비 낮은 임금수준 유지
 - * 395달러(광저우) / 239달러(자카르타), 148달러(호치민), 양곤(53달러)
- 아세안경제공동체(ASEAN Economic Community)* 등을 통한 경제 통합 추진으로 우리 기업의 제3국 시장 개척의 교두보 및 역내 내수시장** 확대 가능성 증대

* 2015년까지 상품, 서비스, 인력, 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 추진

** 아세안 신흥국의 세계 GDP 점유율: 2.8%('12) → 4.0%('22, BMI 전망)

□ (대응방안) 역내 생산요소 활용과 현지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추진 필요

- 당분간 임금 인상 등 기업 경영여건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 supply chain을 확대하는 한편, 현지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제품 개발도 고려

작 성 자	책임조사역	임 영 석
확 인 자	실 장	김 주 영